

투명성 효과를 위한 재료의 특성 및 적용 방법

An Analysis of Application of Transparent Materials in Interior Space

정 필 영*

Chung, Phil-Young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ransparent materials and its methods to apply in space. the ability to see through a physical element, whether it is clear glass, sandblasted acrylic, or a delicate fabric, can have a dramatic and sensory effect on the overall perception of a space. The various range of Transparent materials and product in glass, plastic, fabric, and grid now gives us the potential to maximize the flow of light in our enclosed space.

This research will explore how transparent, translucent, and semi-opaque elements can be used within the interior with full range of see-through materials. The transparent materials can be divided in two level - as structural elements and as stylish accessories. A glass partition or floor, metal mesh stairs can create divisions or link one space to another while maintaining effective levels of natural light. there is also various level of products from glass chair to basin. With the enthusiasm for using transparent materials, transparent materials will be more decorative and powerful application while still maximize the highest possible flow of light.

키워드 : 재료, 투명성, 경계, 빛, 프라이버시

Keywords : Materials, Transparent, Border, Ligh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는 공간의 연속성과 경계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술적인 시공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의 발달에도 기인한다. 한 예로 창문은 우리에게 단지 외부의 시각적 소통만을 의미하지 않고 빛의 유입 또한 주요한 기능이다. 사무실에서 공간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은 밖이 보이는 자리에 책상을 놓으려 할 것이다.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거리가 보이는 혹은 정원이 잘 보이는 자리 일 것이다. 인위적인 빛이 자연적 빛으로 대체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자연적 빛에 노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집에 있든, 일을 하든 자연적 빛이 많은 공간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이는 빛의 양이 공간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적 빛의 활용에 대한 인간의 요구는 유리, 플라스틱, 천, 종이, 메쉬(mesh) 등과 같은 이른바 투명성 재료의 실내디자인 공간에의 적용으로 연결되었다.

최근에 실내 공간에서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언어를 보면 크로스 오버(cross-over), 공간의 연속성, 중첩, 표피(skin), 시공간, 경계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언어들은 투

명성이라는 개념에 의해 재해석 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3차원이라는 구체하고 나누는 기존의 공간의 개념은 유리라는 투명성 재료에 의해 통합하고 연결 한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공간에서의 이 투명성은 바우하우스의 커튼월의 사용 이후 현재에까지는 유리를 대표로 하는 많은 투명성 재료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더불어 기술의 혁명으로 다양한 투명성 재료의 개발과 그로 인한 공간 연출 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디자인의 출현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투명성의 재료의 분석과 그 표현 기법을 고찰하여 공간 연출에 보다 적극적 사용 및 다양한 효과를 표현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공간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개념 및 그 기능, 형식을 문헌 중심의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투명성의 기본 원리를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공간에서 쓰이는 투명성의 재료를 투명도와 그 물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00년대 이후의 상업 공간, 사무 공간, 및 주거 공간에서 나타난 투명성의 재료와 표현기법을 각각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선행 연구의 경우 재료의 성질은 대체로 외부 구조를

* 정희원, 이연 아이디 디자인 실장 (계원조형예술대학교 전시디자인과 강사)

포함한 완성된 건축물 이라는 광범위한 큰 틀에 의하여 주로 연구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대상의 공간들은 투명성이 잘 표현된 사례를 실내 디자인 공간에만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표현기법의 연구를 위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예로 들었고 투명성의 개념이 그 사례 안에 어떻게 표현 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투명성의 일반적 개념

사전적 정의로 투명성은 Trans(across) + Parent(see)의 합성어로 넘어서 보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¹⁾ 즉, 흐림 없이 속까지 환히 트여 밝음을 의미하며 가시적인 측면에서 물체가 빛을 한 사물의 표면을 통하여 다른 공간을 관통함을 의미한다.

투명성은 또한 도덕적 의미에서의 명백한, 결백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물이나 인간현상의 명백한 진리를 찾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표현 하는데 쓰인다.

투명성의 미학은 빛과 밝음이다. 이는 어둠을 피하고 빛을 갈구하는 욕구와 맞물려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필립 스타크(Phillippe Starck)의 라마리 의자(Lamarie Chair)와 루이 고스트의 의자(Louis Ghost Chair)에서 보여지는 투명성을 강조한 디자인 미학은 바로 이 투명성이 갖는 빛, 그리고 그 빛의 유입과 투과, 더 이상 단순화될 수 없는 밝음,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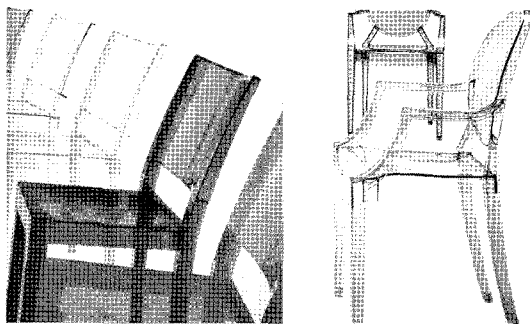


그림.1 Phillippe Starck 의 La Marie Chair 그림 2. Phillippe Starck 의 Louise Ghost Chair

투명성은 서로 다른 오브제들의 융합을 시도하는 경향으로 보일 수 있다.²⁾ 이러한 성질은 투명성이 갖는 사전적 의미의 명백함과 반하는 의미로 애매모호함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투명성의 이중성은 두 개의 형상을 동시에 인식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간을 동적인 형상으로 인지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많은 건축가 및 디자이너의 관심을 갖게 했다.

2.2 투명성의 공간적 개념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의해 자연과의 소통을 막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이전까지는 벽, 천정은 구조체로써의 역할로 창문을 통한 외부와의 소통이 극히 제한되어 왔으나 모더니즘을 필두로 한 새로운 접근방식은 벽을 구조체에서 분리 시켜 공간은 자연과 보다 많은 소통을 가능케 해 공간의 경계에 대한 다각적 해석을 가능케 했다. 즉 내부 공간과 외부공간의 시각적 소통을 통해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공간에서의 이 투명성은 가시적인 측면에서 단절된 두 공간을 연결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두 공간의 연결을 넘어 두 공간을 동시에 인식하는 표현의 특징이 있다. 즉, 이를 통해 다양한 매스의 접합,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의 자연스러운 매스로의 수용 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투명성은 서로 다른 두 오브제를 중첩(overlapping)시켜 두 오브제와는 완전히 다른 애매모호한 허상을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투명성의 사전적 의미인 투명한(clear)와 반대되는 투명성의 또 다른 성질이며 투명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투명성이 적용된 공간은 그 경계를 넘어 공간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으며, 또 서로 다른 두 성격의 공간을 중첩시켜 아주 새로운 공간을 표현할 수 있기에 공간에서는, 특히 실내공간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 기법인 것이다.

공간에서 투명성의 또 다른 특징은 건축물의 경량화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근대의 공간은 무거운 매스에 의한 중량감을 피할 수 없었으나 투명성 재료에 의한 경계의 표현으로 현재의 건축물에는 구조체적 중량감을 억제 할 수 있다.

투명성을 이해하려면 유리로 대표되는 재료의 물성에 의한 내부와 외부를 연결 짓는 벽이라는 시각적 개념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경계의 모호성, 가변성, 자유로운 구조,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불투명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공간은 상업공간이든, 거주공간이든, 개인적 공간의 필요성과 공동의 공간의 필요성이 모두 요구되며 이러한 서로 상반된 두 공간의 적절한 배치야말로 공간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 핵심 요소이다. 사적 공간이 필요하다해서 모든 빛을 막아 버릴 필요는 없다(사적 공간에 대한 필요로 인하여 빛의 요소를 모두 차단할 수는 없다.) 반투명한 재질의 사용으로 빛의 투과는 허용되 투명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인 차폐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반투명한 재질은 외부 요인과의 완전한 단절 없이 심리적으로 사적 공간과 안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표 1.은 투명도에 따른 재질과 그의 특성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분류한 것과 같이 한 재료에서도 다양한 투명도를 표현 할 수 있다.

1) 윤재은,김정아, 박물관 전시공간의 투명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서디자인학회 논문집 2호, p11
 2) 이정렬, 유리의집-투명성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4호, p147

표 1. 투명도에 따른 재질과 특성의 분류

투명도	재질	표현적 특징
투명성 (Transparent)	투명 유리 색유리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순수성 상정성
반투명성 (Translucent)	반투명 유리 무늬 유리 유리블럭 폴리카보네이트 페브릭/종이 메탈 메쉬/우드 그리드	모호함 융합 상상
불투명(Opaque)	아크릴 합성수지 PVC 페브릭/종이	이중성 안정

이는 공간에서 투명도를 실현 할 때 재료의 선택뿐만 아니라 선택된 재료의 투명도에 따라 공간의 표현이, 인간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필립 존슨의 유리집(Glass house)에 사용된 투명 유리의 개방감과 마리오 보타(Mario Botta)의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에 구름다리로 사용된 투명성에서 오는 감정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 3. Phillip Johnson, Glass House.



그림 4. Mario Botta., Museum Of Modern Art

2.3 투명성의 표현 방법

건축 재료의 발달로 투명한 벽체 즉, 유리를 발명하게 됨에 따라 공간을 한정하는 Solid한 존재로서의 벽체는 적어도 시각적으로는 그 질량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곧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리, 플라스틱, 투명 비닐, 메쉬(mesh)와 그리드(grid), 폴리카보네이트, 천, 종이 등은 그 물성의 투명도에 따라 공간의 성격에 따라 선택되어 적용되어지고 있는 재료이다.

3. 투명성의 재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내 디자인에서 적용된 투명성 재료를 재질에 따라 분류 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최근 트렌드를 고찰하였다.

표 2. 재질에 따른 투명성 재료의 특성

구분	세부 재질	물성	표현 특성
유리 (Glass)	투명 유리 색유리 무늬 유리 유리블럭	높은 강도 높은투명도	빛의 굴절 미학 공간의 비물성화 타 재료와의 친화성
플라스틱(Plastic)	아크릴 PVC 합성수지 실리콘	높은 강도 가공성 재활용	모서리에서 빛의 투영 가벼움 주물에 의한 대량생산 무한한 컬러 조합 경제적
섬유직물 (Fabric)	실크 울, 면 나일론	다양한 표면처리	축감적 경험 표현의 자유 다양한 패턴
종이 (Paper)	식물성 섬유 목재 펄프	재활용 빛의 흡수	기억의 경험 빛의 부드러움
메쉬 (Mesh)	메탈 메쉬 메탈페브릭	차가움 높은 강도	가벼움 명암, 중첩
격자 (Grid)	우드 메탈	자연친화성 높은 강도 중량감	격자구조와 투명도 부드러운 빛 정적, 시적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투명성 재료는 기존의 전통적인 재료의 범위를 넘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투명성의 상징인 경계의 모호함은 유리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어느 재료든지 같은 효과를 표현 할 수 있다.

투명성 재료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구조재의 요소로의 활용이고 둘째는 장식적 요소로서의 활용이다. 이러한 큰 틀 아래에서 투명성 재료는 공간을 통합하기도 하고 분할하기도 한다. 중요한건 재료의 선택이 무엇이든 투명성 재료는 개별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다.

3.1 Glass

구조체로서 벽, 바닥, 천정이든 작은 가구나 소품의 재료로 쓰이든 본질적으로 유리에겐은 공간에서 매력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유리는 투과성이 우수하고 비물성적이며 강성을 가진 대표적인 재료이다.

근대의 유리는 작은 유리판이나 소품에만 주로 사용되었으나 1959년 알라스터 필링톤(Alastir Pilkington)에 의해 강화유리가 개발 되면서 유리는 구조체로서 부각되기

정필영

시작했다. 현재 유리는 단순한 형태의 판유리를 넘어 유리의 강성과 형태의 유동성이라는 특성을 살린 작품들이 표현되고 있다.

유리의 강성과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특성을 살린 작품으로 노만 포스터(Sir Norman Foster)의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의 유리 천정(Glass Roof) 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하나의 유리판을 모두 다른 형태의 연결체로 사용하여 유럽에서 가장 큰 오픈 공간을 연출 하였다.(전체6,100m2의 공간을 유리로 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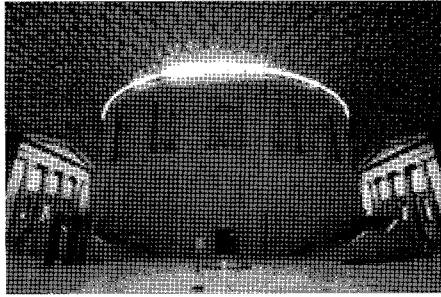


그림 5. Norman Foster, Great Court at British Museum

필립존슨(Phillip Johnson)은 뉴카난(New Canaan)에서 유리를 건물의 표피, 막으로 사용하여 주위 자연환경과 집의 완벽한 중첩, 융합을 이루었다. 그는 집의 사면을 모두 투명한 유리로 처리하여 투명성을 극대화 하고 코어(core)부분은 solid한 매스(mass)로 처리하여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처리했다.

유리는 또한 작은 스케일의 가구나 욕실에서 사용된다. 특히 욕실은 물이라는 투명성과 성격을 같이하여 욕실 용품의 소재로 디자인되어왔다.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사각형의 유리 세면대는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채워진 물을 위에서만 보던 기존의 세면대와는 다르게 모든 면에서도 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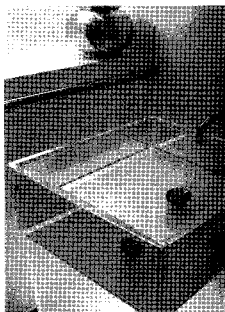


그림 6. Glass Basin

유리는 투명도에 따라 투명유리 반투명 유리로 분류한다. 특히 반투명 유리는 투명 유리에서의 투명성에 의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는 필요한 자연과의 충분한 흡수와 최소한의 개인공간의 확보를 가능케 하여 공간의 경계에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3.2 Plastic

플라스틱은 값비싼 자연적 자원의 대체 재료 발명되었으나 지금은 플라스틱이 가진 무궁한 가능성과 적용성(Flexibility)으로 많은 디자이너에게 매우 선호되는 재료로써 사용 되어왔다.

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아크릴과 PVC로 대표되는 열가소성 플라스틱(Thermoplastics)으로 이것의 고유한 성질의 변화 없이 열에 의해 반복적으로 부드러워지고 단단해 질수 있다. 둘째는 에폭시(Epoxy)와 폴리우레탄(Polyurethane)으로 대표되는 열경화성 플라스틱(Thermosetting)은 열에 의해 한번 변형된 형태는 다시는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크릴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 쉽게 구부러지는 성질에 의해 가구에 적합하고 반면 에폭시나 우레탄은 방탄복이나 도료의 사용에 적합하다.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과 부식되지 않는데 있다. 이것은 현대의 자연환경 파괴라는 지속가능한(Sustainability) 컨셉에 반하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플라스틱의 종류와 투명성이라는 재료의 특성을 가구부터 욕실 용품, 등기구(Light Fixture), 스크린, 건축용도로 이용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1) 아크릴은 실내디자인에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플라스틱이다. 가벼우며 내구성이 강한 아크릴은 유리와 같이 투명, 반투명으로 연출될 수 있고 다른 재질과 같이 혼합하여 새로운 유형의 재질로 재탄생하고 있다.

투명성이란 특성 중 아크릴의 가장 큰 특징은 패널이나 면에서의 투과는 유리와 동일하여 바로 통과해 버리지만 모서리나 끝부분에는 빛이 투영된다는 것이다. 이 특성 때문에 많은 가구 및 등기구(Light Fixture) 디자이너에게 빛을 발산하는 모던 오브제로 사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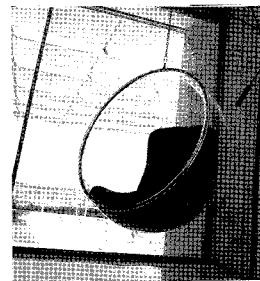


그림 7. Bubble Ch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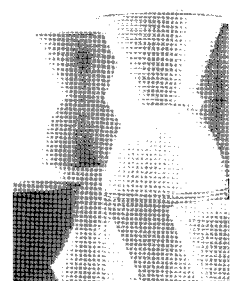


그림 8. Prince Aha

이탈리안 가구 제조사 카르텔(kartell)은 플라스틱 가구 제조사로 유명하다. 카르텔은 아크릴의 미적 유용성과 무한한 색의 조합에 기초 하여 저렴한 디자이너 가구를 대중에 공급한다. 즉, 플라스틱이란 재료에 의해서 고가로 인식된 디자인 가구를 이제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활

용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크릴의 투명성은 기존의 무거운 가구와 어울려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비워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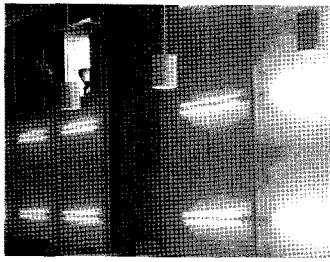


그림 9. 폴리카보네이트 패널(Polycarbonate Panel)

(2)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는 아크릴과 마찬가지로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나 아크릴과는 달리 주로 투명성과 경량성, 잘 휘지 않는 강성을 강조한 스크린이나 패널(Panel)로 사용된다. 특히 최고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욕실의 윈도우 스크린으로 적합하다. 폴리카보네이트는 빛은 투과 시키면서 두 공간을 단절 시키는 특징이 있다.

(3) PVC로 알려진 폴리비닐(Polyvinyl)의 가장 큰 특성은 아크릴과 폴리카보네이트의 강성과 다른 경량과 부드러움이다. 그래서 주로 실내의 커튼으로 사용된다. 투명성은 아크릴이나 폴리카보네이트와 동일하나 색이 변하거나 다른 물질에 의해 색이 붙들어 질 수 있다. 이 특성은 PVC에 보다 다양한 칼라톤(Color Tone)을 형성하며 그 칼라톤에 의한 다양한 투명도를 연출할 수 있다.

PVC의 투명도는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부분도 디자인 요소로 끌어 드리는 데 기여했다.

에넬라이(Ennemlaghi) 디자인 팀에 의해 디자인된 큐브 의자(Cube Chair)는 좋은 예이다. 소파의 기능성인 스프링을 PVC를 통하여 보여줌으로서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한다. I-mac은 PVC로 컴퓨터의 커버를 입힘으로써 우리의 컴퓨터가 작동 되어지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곳까지 우리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렇듯 투명성의 가능성은 공간에만 한정되어 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시적 경험을 확대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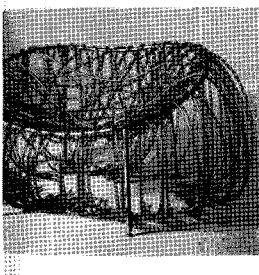


그림 10. Edra, Anemone ch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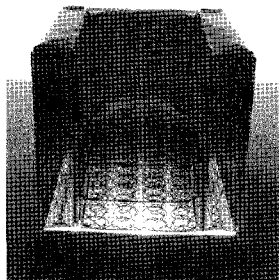


그림 11. Edra, Cube Chair

3.3 Fabric and paper

일본의 텍스타일(Textile) 디자이너 주니치로 타니자키(Junichiro Tanizaki)는 서양의 종이는 빛을 버렸지만 동양의 종이는 빛을 안으로 흡수 했다고 종이를 투명성 재료의 하나로 인식했다. 천과 종이의 특징은 강한 빛을 부드럽게 걸러준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어떤 투명성 재료에서 표현되어진 못한 연출기법이다.

유리와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사용된 공간은 때로는 차갑거나 황량한 느낌이 든다. 반면 자연광의 손실 없이 종이와 얇은 천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가능케 한 창문의 투명성을 조절하는 기능으로써 천과 종이는 고대부터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오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천과 종이는 다른 투명성 재료와 다르게 인간의 감성, 추억, 촉각적 느낌(tactile)을 경험하게 한다. 또 하나의 특성은 다양한 패턴의 디자인과 표면처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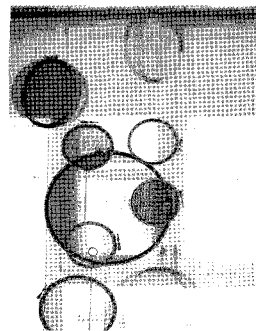


그림 13 Natural Fabric, Linen and Co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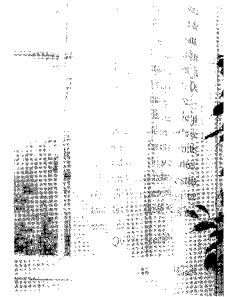


그림 12 Text Printed Pattern

종이는 가장 역사가 긴 투명성 재료이다. 종이는 2세기 경 중국에서 개발되어 중세에 유럽에 전해져 18세기 산업혁명에 의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는 투명성의 재료로 인식되지 못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 3세기 중반에 종이를 수입한 일본은 종이의 투명성에 대해 인식하고 공간에 이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서양에서는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이용하여 빛과 색의 조화를 표현 했지만 동양은 종이를 이용하여 자연의 빛을 순수한 흰색 종이를 통하여 공간 내부에 끌어 드리고자 했다.



그림 14. Shoji Screen



그림 15. Paper Blind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종이의 단점인 내구성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창문의 블라인드부터 옷 등기구의 작동 부드러운 빛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쓰인다.

3.4 Mesh and Grids

비록 메탈(Metal)이나 목재(Wood)는 Solid한 재료이나 격자 구조(Grid Structure)를 가지고 있을 때 투명성은 표현 될 수 있다. 격자 구조의 특징은 격자의 수에 있다. 격자의 수에 따라 투명도는 투명부터 거의 Solid한 불투명도 연출될 수 있다.



그림 16 Wire Cur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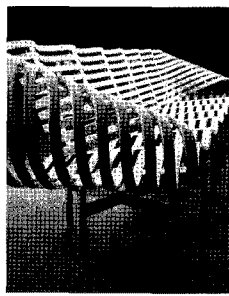


그림 17 Wood Weave Structure

오늘날의 격자 구조의 디자인은 단순한 디자인을 선호하며 다른 재료와 다르게 유리와 플라스틱의 차가움과 종이와 천의 따뜻함을 동시에 구현 할 수 있어 산업 공간부터 주거 공간까지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격자 구조는 또한 보는 방향에 따라 그 투명성이 달라지며 오브제의 형태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 특성은 많은 가구 디자이너에게 격자 구조의 가능성과 새로운 미적 기준을 제시 하였다. 격자 구조의 가구는 가벼우면서 견고하였고 투영된 빛에 의하여 다른 재료에서 볼 수 없는 오브제의 다양한 명암을 볼 수 있다.

4. 결론

투명성 재료는 실내 공간에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혁명을 가져다주었다. 건물의 구조체인 벽으로 시작하여 계단, 바닥, 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기존의 구조체인 벽돌, 시멘트 등을 대체하였다. 이는 자연광의 공간 수요의 극대화와 오픈 공간이 공간의 메인 스트림(Main

Stream)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노만 포스터(Sir Norman Foster)의 런던 시청(London City Hall)이 좋은 예이다. 이렇듯 현대사회로 갈수록 투명성 재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실내디자인에서 투명성 재료의 사용과 구성은 공간의 완성도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투명성의 표현은 단순히 유리의 사용으로 공간의 중첩, 투과, 경계의 모호함 등의 투명성의 가시적 표현에만 한정 지우면 안 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투명성의 특성을 재료의 투명성과 공간의 투명성으로 나누어 그 표현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정의되는 공간의 깊이를 다루고자 했다. 또한 투명성 재료의 물성, 재료의 표현기법 및 그 투과도를 시각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 재료가 적용된 공간에서의 심리적, 감각적 의미 또한 다루고자 했다. 이는 투명성 재료가 더 이상 건물의 피막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우리에게 최적의 육체적, 정신적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데 주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이후의 적용된 투명성 재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실질적인 재료 선택 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Elspeth pridham, Transparent, Mitchell beazley, 2003
2. Alastair Fuad-luke, The eco-design handbook, Thames& Hudson, 2002
3. Ellen Lupton, Skin, Laurence King ,2002
4. 윤재은, 김정아, 박물관 전시공간의 투명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시디자인학회 논문집 2호, 2005
5. 이정렬, 유리의집-투명성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4호, 2000
6. Interior Design, 2005. 01 (Vol. 76 No. 01) - 2007. 10 (Vol. 78 No. 12), Reed Business information
7. 商店建築, 2005. 1 (Vol. 50 No. 01) - 2007. 10 (Vol. 52 No. 10), Tokyo: Shotenkenchiku-sha
8. Frame, 2005. 6 (No. 54) - 2007. 9 (No. 58), Amsterdam: Frame publishers
9. www.cft.or.kr
10. www.samsundesign.net,

(접수 : 2007. 10)